

광주·전남 수출 기업 10곳 중 3곳 “올해 더 악화”

무역협회, 광주·전남 수출환경 전망

광주·전남지역 수출 환경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역 수출기업들은 지난해보다 올해 수출 환경이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지역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데다, 전남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철강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4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수출환경 전망'에 따르면 응답기업 131개사 중 37.4%는 올해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4.9%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0.5% 수준에 머물렀다. 전년도 조사 대비 악화 전망할 것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악화될 것” 지난해보다 4.9% 늘어 물류비 지원 대책 등 요구...농수산물·의료기기 등 개선 전망

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증가하는 등 지역 수출기업들이 올해 수출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업종별로 수출 증가 전망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철강제품(36.4%), 금형 및 자동차부품 등 기계류(52.6%), 전기전자(52.9%)는 수출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의료기기(37.5%), 농수산물(33.3%) 분야는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 전망이 많았다.

지역 수출기업들이 수출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환율 변동 등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응답기업들은 수출전망의 부정적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6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금리인상(33.6%), 원화 환율 변동(26.0%), 인건비 상승 및 인력부족(25.2%), 수출대상국 경기둔화(24.4%) 등이었다.

수출 증가에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수출기업들의 온·오프라인 해외수출 마케팅 확대(42.8%)를 꼽았으며, 세계 수요 회복(36.6%), 자사 제품 경쟁력 제고(36.6%), 지자체 지원(22.9%)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겪고 있는 애로에 대해서는 무려 97.4%가 수출 차질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애로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수준인 47.9%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호소했다. 또 인건비 상승 및 인력부족(15.4%), 금리인상(11.1%) 수출대상국 경기둔화(10.3%), 물류비 상승 및 선박 부족(9.4%)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문제들이 자신들의 회사에 미칠 영향을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뿐더러 전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힘겨워하는 실정이다.

전체 응답 기업의 65.6%는 주요 수출 이슈가 자사 품목에 미치는 영향까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15.3%에 불과했다. 수출 관련 이슈 및 정보도 뉴스레터 등(55.7%)을 통해 접하고 있는 게 지역 업계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지역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들은 물

류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출업계가 협회 및 유관기관에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물류비 지원이 61.8%로 전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선 지원사항으로 꼽혔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제품 34.4%, 기계류(금형, 자동차 부품 포함) 28.9%,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27.6%, 전기전자(가전포함) 20.0% 순으로 물류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의료기기 업종은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이 23.8%로 가장 많았다.

이동민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전년 대비 올해 수출기업의 대외환경이 더욱 엄중함을 시사하고 있고, 업종별로 정교한 맞춤형 수출성과 방안 모색이 시급함을 보여준다”며 “무역업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 세미나, 무역인력 채용지원 등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남해화학 “지역 인재 채용으로 여수 경제 활성화 돕겠다”

자회사 엔이에스 머티리얼즈 통해 여수·순천·광양 등 14명 채용

남해화학(대표이사 하형수)은 자회사인 엔이에스 머티리얼즈(주)가 지난달 28일 '2023년 상반기 부문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여수 인근 지역인재 14명을 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입사원은 여수시(8명)와 순천시·광양시(6명) 출신으로 구성됐다. 채용 전형에서 남해화학과 자회사에서 운영 중인 지역인재 거점제(서류전형 시 여수와 인근 지역 인재에 대한 가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엔이에스 머티리얼즈는 이달 말 여수시 낙동동 소재 남해화학 공장부지 내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채용 인원들은 신규 공장의 생산관리 및 품질분석 분야 업무로

맡게 될 예정이다.

한편, 남해화학은 디지털경제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2021년도부터 반도체 소재 사업에 진출했으며,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 위기에서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형수 대표이사는 “이번 자회사 공개채용은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 우선채용 시스템이 잘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남해화학은 자회사와 함께 여수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여수 국가산업단지 기업 간의 상생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사담당자 노동법 교육 광주상의 6일 오후 1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지역 기업체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6일 오후 1시 '인사담당자가 놓쳐서는 안되는 필수 노동법' 교육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근로시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정책에 대한 해설과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중점 사항에 대한 강의를 통해 기업 담당자의 노무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이날 강의는 코리아노무법인의 조현실 노무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개정 노동관계법령(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고용지원제도 ▲채용 시 점검사항(근로계약, 임금관리 등) ▲근로계약 종료 시 점검사항(해고 관련 노동법령 등) 등 노무관리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LH 광주전남 올해 5600억 규모 신규 사업

선운2·순천 도시첨단단지 개발 298억...주거복지사업 3599억 등

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경)가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총 56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4일 올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모두 5672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광주선운2, 순천 도시첨단단지 개발 사업 등에 298억원, 광주선운2, 영광단지 및 영암 학산 공공주택 건설에 1775억원, 매입입대학보사업 및 노후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사업에 359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지역맞춤형 사업을 통해 지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로 고용유발 효

과를 거둘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LH 광주전남본부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9만5947호의 임대주택에 더해 광주선운2, 전남곡성, 해남해리 등 지역 거점지구에서 건설된 소득계층별 건설 임대주택 1003호도 6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도심지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기존주택 매입 임대 1272호와 기존주택 전세임대 1679호를 확보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특히 정부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민간건설사를 활용한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696호) 확보 노력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역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역 맞춤 사업도 추진한다.

임대주택 내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 등 커뮤니티 매니저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발달 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단지 내 임대 상가를 활용, 외부 기관과의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축소·운영했던 공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학생 대상 순회강연(4월),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5월)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경 본부장은 “고환을 등 악화된 대외여건에 속에서도 우리지역 균형발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선출

김명기(사진) 국제건설 대표이사가 제13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선거 결과 김명기 회장이 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김명기 국제건설 대표이사는 총 투표자 341명 중 176표를 획득해 165표를 얻은 조성래 DRC총원건설 회장을 11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신임 김명기 회장은 조선대 경영대학원 건설경영사 과정과 전남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11대 부회장과 운영위원, 대한건설협회 중앙회 기획위원, 대의원, 중소기업위원, 광주상의 상임의원 등을



역임했다. 김명기 신임 회장은 “회원사들과 소통과 화합으로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건설업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개편과 규제 완화,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협회 이미지 개선 등을 추진해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명기 회장은 오는 6월 26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스마트공장 재직자 심화과정 중진공 호남연수원 교육생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호남연수원은 오는 14일까지 '2023년 제1차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스마트공장 도입(예정) 중소·중견기업의 재직자로 전국에서 총 350명, 호남권에서는 40명을 모집한다. 교육분야는 ▲도입전략 ▲데이터 분석 ▲제조 자동화 ▲운영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다.

연수기간은 총 3개월이다. 세부적으로는 ▲오리엔테이션(6시간) ▲온라인 이론 연수(48시간) ▲오프라인 실습 연수(16시간) ▲현장 프로젝트(80시간) ▲결과보고회 및 수료식(10시간) 등 총 160시간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전남 물가 상승폭 ‘1년만에 최소’

광주 3월 4.7%·전남 4.1% 올라...근원물가 오름세는 유지

지난달 광주와 전남지역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둔화했다.

석유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0.9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4.7%올랐다.

이는 2월 상승률(5.1%)보다 0.4%포인트 낮은 것으로 작년 3월(4.0%)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물가 상승세는 작년 4월 4.7%, 5월 5.5%, 6월 6.3%, 7월 6.6%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뒤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전남은 4.1%를 보였는데, 지난해 2월(4.0%)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었다.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데에는 석유류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다.

광주는 휘발유는 -16.8%, 경유 -14.0%를 나타냈고, 전남은 휘발유 -17.1%, 경유 -13.9%를 보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국적으로 4.8% 올라 전년(4.8%)과 상승률이 같았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것은 2021년 1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하면 물가의 기초적 흐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4.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4.4% 올라 전년(5.5%)보다 상승세가 둔화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보이며, 작년 상반기에 많이 상승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공요금 인상 요인과 석유류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가격 하락 여부 등 여러 불확실한 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뷰티살롱’ 서 상담받으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달 한 달 동안 메이크업 예약 서비스 ‘뷰티살롱’을 열고 뷰티 컨설팅을 제공한다. 화장품 브랜드 맥, 바비브라운, 나스 총 3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개인별 어울리는 색상 제안을 비롯해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도울 예정이다. 또 1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상품권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0.51(+8.17)
▲ 코스닥	857.18(+2.22)
▲ 금리(국고채 3년)	3.279(-0.063)
▲ 환율(USD)	1315.80(-0.70)